

새벽부터 한밤까지 잠들지 않는 '사교육 광풍'

#일주_이슈

'호남사교육 1번지'
광주 봉선동 집중해부



오전 7시 카페 과외로 하루 시작
'불법'에도 학교시험 앞두고 성행
밤시간 학원 마친 자녀 귀가 행렬

광주 봉선동 일대가 '호남 사교육 1번지'로 불리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광주의 대치동'이라 불리는 봉선동 과밀학급 문제를 교육 현안 1순위로 꼽는다. 이들은 봉선동 사교육 문제가 학습권 침해, 부동산가격 상승 견인, 입시경쟁 과열, 학교서열 조장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봉선동 학교를 다니기 위한 위장전입은 광주 맘(mom) 카페 등에서 대수롭지 않게 언급될 정도다. 높은 학력 스트레스 탓에 봉선동 일대 소아 정신과는 매일 오픈된 수준으로 많은 학생의 상담,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봉선동의 기형적인 사교육 실태를 들여다 보고 나아가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아침과외'로 시작하는 하루
"시험기간에는 일상이에요. 중·고등학교 6년 간 이렇게 공부해왔어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봉선동 중심지인 쌍용사거리로 조금 지나 프랜차이즈 카페가 보인다. 이른 아침에도 카페는 꽤 분주했다. 카페 한 구석에는 선생으로 보이는 한 남성과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수험문제를 가운데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자세히 들어보니 남성은 학생에게 문제 풀이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여학생은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하고, 가끔 질문도 던졌다. 이내 8시가 되자 학생은 카페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의 차량에 탑승했다.

남성 A씨는 "학생들이 수업하기 전 정신을 깨우기 위해 과외를 한다. 보통 중간고사 등 시험 한달 전이나, 고3 수험생들 대상으로 관리한다"며 "학생들도 아침을 일찍 시작해 피곤해 해도 만족도가 높다. 아침에 과외로 하루를 시작하면 저녁까지도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은 온라인으로 하거나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생은 부모님이 현장(현장강의)을 원해서 카페에서 한다. 학교 인근에서 수업하면 학생들도 바로 등교해서 시간을 아낄 수도 있다"며 "불법인줄 몰랐다. 이 지역에서는 다들 이렇게 한다"고 덧붙였다.

고등학생 기말고사를 앞둔 6월이 되면 봉선동 학부모 사이에선 '아침과외' 전쟁



학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지난달 26일 광주 남구 봉선동 학원가 일대에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이 치러진다. 내신 관리 차원에서 시험 대비를 위해 아침부터 등교 전 불법 과외가 성행하는 것. 보통은 집이나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되는 화상수업이 일반적이인데, A씨처럼 현장강의를 원하는 학생은 학교 인근의 카페 등에서 대면 과외도 이뤄진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장소 등을 신고해야 되는데, 일반 카페나 스터디카페는 정해진 장소가 아니어서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법상 교습소 설립·운영을 위해선 신고자와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소의 명칭과 유지,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날 수업한 과외선생 A씨도 봉선동 학원가 출신이다. 아침과외는 단가도 더 높다. 일반 시간대 과외는 대학생 기준 시간 당 3만원이지만 아침과외는 시간 당 2만원을 더 받는다. 졸업 후에도 용돈 벌이를 위해 불법도 성행하는 사교육 광풍에

올라 탄 것이다.

●꺼지지 않는 '봉선동의 밤'
같은 날 오후 10시께. 교복을 입은 한 여자가 아이가 도로변에서 영어단어를 외우고 있었다. 부모를 기다리고 있거나 취재진의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학생은 단어를 외우는 중간중간 하품을 하며 내려오는 눈꺼풀과 사투를 벌이는 모습이 다. <2면에 계속> 송민섭 기자

광주·전남 '205mm' 폭우... 도로 침수 등 피해

이틀새 市 14건·道 38건 피해 접수
하천변 도로·밭길·하늘길 통제

장마 정체전선 영향으로 연일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면서 광주·전남에 크고 작은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30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 전역과 전남 22개 시군(여수·거문도·초도 제외)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해제됐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구례 205mm, 진도 193.5mm, 영암

학산 183.5mm, 광양 174.6mm, 진도 156.9mm, 순천 154.1mm, 장흥 147.1mm, 강진 146.5mm, 보성 144mm, 해남 111.9mm, 광주 103.2mm, 완도 100.6mm, 고흥 83.8mm, 목포 82.5mm, 여수 73.4mm 등으로 집계됐다.

쏟아진 비에 크고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시·도와 소방 당국에 접수된 호우 피해 관련 출동 신고는 광주 14건, 전남 38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광주 피해 신고 내역은 도로 물 고임·침수 8건, 나무 쓰러짐 3건, 토사 유출 2건, 빈집 담장 무너짐 1건 등으로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도로 물 고임·배수 불량 23건, 주택 침수·배수 지원 요청 10건, 나무

쓰러짐 3건, 간판 흔들림 1건, 공장 침수 1건 등이 피해 신고 사례로 파악됐다.

목포·여수·완도항을 오가는 53개 항로, 여객선 80척 중 47개 항로 60척도 운항을 멈췄다. 비는 1일 오후부터 광주·전남에 5~10mm, 남해안에 20~60mm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일시 소강상태를 보이더라도 최장 일주일 가량 꾸준히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4면> 김은지 기자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터미널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